

얼어붙은 광주·전남 소비심리...11월 지수 올 최저치

CCSI 91.1 전월 대비 3.8P 하락...가계수입·소비지출 모두 비관 전국 평균 100.7...기준금리 인하 영향 반등 한달만에 다시 하락

광주·전남 지역민들의 11월 중 소비 심리가 올해 들어 최저치를 기록했다. 광주·전남 지역민들은 30개월째 지역 경제 상황을 비관적으로 인식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 발표된 '2024년 11월 광주·전남지역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광주·전남지역 11월 중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91.1로 전월(94.9) 대비 3.8포인트(p) 하락

했다. CCSI는 소비자동향지수(CSI)를 구성하는 6개 주요 지수를 이용해 경제상황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 및 향후 소비지출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지표로, 이번 조사 결과는 한국은행 광주전남 본부가 지난 14일부터 20일까지 광주·전남지역 534가구를 대상으로 소비자 인식 및 소비지출전망 등을 조사한 결과다.

이달 광주·전남 CCSI는 올해 들어 가장 낮은 수치다. 앞서 광주·전남 CCSI는 지난 4월 92.0으로 연중 최저치를 기록한 뒤 정부의 물가 안정 대책 등에 따라 지역 소비자물가 상승률 등이 안정 세로 접어들면서 상승해왔지만, 지역 부동산 등 경기 불황 장기화 및 내년 경제전망 역시 부정적일 것이라는 전망 등에 따라 대폭 하락한 결과로 분석된다. 광주·전남 지역민들은 지역 경기를 비관적으로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CCSI는 지난 20년간의 장기평균치를 기준으로, 100 이상이면 지역민들이 경제상황을 낙관적으로

보았으면 비관적으로 보고 있음을 뜻한다. 광주·전남 CCSI는 지난 2022년 5월(102.3) 이후 30개월 연속 100보다 낮았던 것으로 집계됐다. CCSI를 구성하는 요소 역시 대부분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지역민의 가계 재정상황에 대한 인식을 나타내는 현재생활형편CSI는 87로 전월(86)보다 1p 올랐다. 반면, 생활형편전망CSI는 88로 2p 하락했고, 가계수입전망CSI(-3p), 소비지출전망CSI(-1p) 등도 떨어졌다. 지역민들의 경제상황에 대한 인식을 볼 수 있는 지표로는 금리수준전망CSI가 3p 상승했지만, 현

재정기판단CSI(-6p), 취업기회전망CSI(-6p)는 하락했다. 지역 기업들의 부진 장기화 및 최근 청년 취업이 급감했다는 통계 등과 무관하지 않다. 물가상황에 대해서는 물가수준전망CSI가 137로 전월과 같았지만, 주택가격전망CSI(-5p)과 임금수준전망CSI(-1p)는 1달 전보다 낮았다. 한편, 이달 전국 CCSI는 100.7로 전월(101.7)에 걸쭉 1.0p 하락했다. 지난달 금융통화위원회의 기준금리 인하 및 물가 안정에 따라 경기가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감에 3개월 만에 반등했지만, 한 달만에 다시 하락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광주 인구 37개월째 순유출...지난달 521명 전출

전남 순유입 한달만에 유출 전환

지난달 광주·전남지역의 인구가 또다시 순유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광주는 지난 2021년 9월 이후 37개월째 인구 순유출을 기록하고 있고, 전남은 지난 9월 순유입 전환 이후 한 달만에 다시 순유출 전환했다. 27일 통계청이 발표한 '10월 국내인구이동통계'에 따르면 광주는 지난달 521명이 순유출됐다. 총전입은 1만2956명, 총전출은 1만3477명이었다. 이에 따라 인구 순이동률도 전국 최하위권을 기록했다.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인구 순이동률은 서울이 -0.8%로 가장 낮았다. 이어 부산(-

0.5%), 광주(-0.4%), 경북(-0.3%) 순으로 낮았다. 광주는 월별로 보면 지난달까지 37개월째 인구 순유출을 기록하고 있지만, 연별로 보면 지난 2012년부터 12년째 인구 순유출 되고 있다. 특히 10·20대 청년을 중심으로 수도권 등 타지로의 순유출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지역 내 청년들의 취업을 희망하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문화·여가생활 등 정주여건 개선 등을 요구하고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달 전남은 인구 134명이 순유출됐다. 총전입은 1만3919명, 총전출은 1만4053명으로 집계됐다. 앞서 전남은 올 1월부터 8월까지 인구 순유출

세를 이어왔다. 이어 지난 9월 55명이 순유입되며 증가 전환한 지 1달만에 다시 순유출 전환했다. 전남은 특히 월별로 인구 순유입, 순유출 전환이 잦았는데, 이는 인구 고령화 및 지역 이탈이 20여년 이상 지속됐던 전남에 지난 2014년 빛가람혁신도시 조성 등으로 젊은 인구가 유입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실제 지난해 전남 22개 시·군의 인구 이동을 분석한 결과, 나주가 1361명 늘어 가장 순유입 인구가 많았다. 이어 신안(+749명) 등 10개 시·군에서 인구가 순유입됐고, 여수(-1864명), 목포(-1850명) 등 12곳에서는 인구가 순유출된 것으로 집계됐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나주 혁신도시 공공기관 지역제품 구매 촉진

중기중앙회 광주전남본부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와 27일 나주 웨스턴호텔에서 빛가람혁신도시 10개 공공기관과 함께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과 중소기업협동조합 간 지역상생협의체 (이하 '지역상생협의체')' 회의 개최하고, 지역제품 우선구매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사진) 이번 회의는 지난 2022년 6월 빛가람혁신도시 공공기관의 광주전남 중소기업 제품 구매를 촉진하기 위해 '지역상생협의체'를 출범한 후 올해 세 번째로 개최됐다. 이 자리에는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임경준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회장을 비롯해 전성주 광주전남작물보호제판매업협동조합 이사장 등이, 공공기관에서는 한국전력공사, 한전 KPS 주식회사, 한전KDN 주식회사, 한국전력거

래소,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등 10개 기관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공공기관에서 지역제품 구매를 위해 협동조합 추천 제도를 활용하는 방법과 구매 사례를 발표했으며, 공공기관 구매 담당자가 협동조합 추천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전문가가 현장을 직접 방문하는 '공공구매 현장 지원 서비스'를 마련하기로 했다. 신정훈 국회의원은 격려사에서 "중소기업 현장의 어려움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며, 빛가람혁신도시 공공기관과 지역 중소기업, 협동조합이 '지역상생협의체'를 통해 지역경제 위기를 극복하도록 의정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광주은행 창립 56주년 기념

과학 유튜브 채널 개도 초청

소외계층·청년 문화특강

광주은행이 최근 창립 56주년 기념으로 지역 내 소외계층 및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문화특강을 진행했다. (사진) 이번 특강은 광주은행이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역사회 및 청년 지원을 위한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이다. 이번 문화특강에는 유튜브 구독자 122만명을 보유한 유명 과학 유튜브 채널을 초청해 "인공지능 AI, 어디까지 왔을까?"를 주제로, 청년들과 만나 인공지능(AI)의 발전과 미래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특강은 이번 특강에 참석한 소외계층 및 청년들에게 AI를 포함한 신기술에 대해 설명함으로써 지역 청년들에게도 동기 부여하기



도 했다. 고병일 광주은행 은행장은 "이번 특강을 통해 지역 청년들이 과학과 기술에 대한 흥미를 느끼

고, 앞으로 진로와 목표를 설정하는 데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전남 기업 XR 융합콘텐츠 제작 지원사업 성과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제)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 지역 XR(확장 현실)-메타버스 기업의 기술력 강화를 위해 추진중인 2024년 XR 융합콘텐츠 제작 지원사업을 성공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XR 융합콘텐츠 제작 지원사업'은 전남 메타버스지원센터 운영사업의 일환으로 전남 특화산업 및 지역 현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XR, 메타버스 기반 융합콘텐츠 개발을 위해 총 6억9000만원 규모의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 5월 지정(스마트전력, 생태환경) 과제 2개, 고도화 과제 2개, 자유 과제 3개 등 총 7개의 과제에 참여한 전남 XR-메타버스 개발 및 제작 기업은 선정해 본격적으로 추진 중이다. 대표적으로 ㈜스마트큐브와 다운플레이스는 해당 사업의 지정 과제 중 스마트전력 과제에 선정되며 '수소 에너지 전주기 시설물 특화형 디지털트윈 저작 솔루션 개발'을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다. 해당 솔루션은 수소 에너지 생산의 효율성을 증대하고, 전주기 데이터 관리 및 시각화를 통해 안정성을 제고해 생산

비용을 저감하는 디지털트윈 기술을 개발한다. 솔루션 개발을 통해 디지털트윈 기반의 시각화 서비스를 구축하여 수소 에너지 전주기의 통합 운영 관리 효율성을 높이고, 수소경제 활성화의 마중물이 되어 글로벌 시장 진출 기반 마련의 성과가 기대되고 있다. 실제로 스마트큐브는 글로벌 투자회사 ARC Group과 NDA(비밀유지계약)를 체결하고 미국,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네트워킹을 강화하고 있다. 이는 국내 최초로 수소 발전 분야의 디지털트윈을 도입한 사례로, 해외에서도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또 올해 철강 제조 분야로 디지털 트윈을 확장하는 신규사업도 추진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에스씨 크리에이티브는 순천만자연생태관 일부 공간에 XR 기술 활용 홀드룸이 비행체영상을 기반으로 한 이트랙션, ㈜엑스퍼스는 증강현실 운동처방 콘텐츠, ㈜여행가자는 MR 관광콘텐츠 등 메타버스·AI 기술이 접목된 다양한 콘텐츠가 개발하여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예금금리 내렸는데...가계대출 금리 석달째 ↑

25개월만에 최대폭 뛰어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억제 압박에 은행들이 일제히 가산금리를 올리면서 가계대출 평균 금리가 3개월 연속 높아졌다. 이에 따라 은행의 이익 기반인 예대마진(대출금리-예금금리)도 두 달째 커졌다. 한국은행이 27일 발표한 '금융기관 가중평균 금리' 통계에 따르면 예금은행의 10월 가계대출 금리(신규취급액 기준)는 연 4.55%로 전월(4.23%)보다 0.32%포인트(p) 올랐다. 8월(+0.02%p), 9월(+0.15%p)에 이어 상승세를 유지했고, 2022년 9월(+0.39%p) 이후 2년 1개월 만에 가장 크게 뛰었다. 가계대출 가운데 특히 주택담보대출이 3.74%

에서 4.05%로 0.31%p나 올랐다. 역시 3개월 연속 상승일 뿐 아니라 2022년 9월(+0.44%p) 이후 최대 오름폭 기록이다. 하지만 신용대출(5.86%)은 한 달 만에 0.01%p 떨어졌다. /연합뉴스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503.06 (-17.30)
↓ 코스닥	692.00 (-1.15)
↓ 금리(국고채 3년)	2.741 (-0.032)
↓ 환율(USD)	1398.55 (-1.65)

취업 준비생 10명 중 4명 "하반기 취업 더 어려워져"

취업 준비생 10명 중 4명은 올해 상반기보다 하반기가 취업 문이 더 좁아졌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 준비생들은 '워라밸' (일과 생활의 균형) 실현 가능성이 크고, 3000만원 대 연봉에, 수도권에서 일할 수 있는 일자를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전국 20~34세 남녀 구직자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미취업 청년의 취업 준비 실태조사'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에서 올해 하반기 취업 환경에 관한 질문에 가장 많은 응답자 43.1%가 상반기보다 악화했다고 답했다. 개선됐다는 응답 비율은 6.7%에 불과했다. 악화했다고 느낀 이유(복수 응답)로는 '경기 침체 지속'이 74.7%로 가장 많았고 '청년 실업 심화로 인한 일자리 경쟁 격화'가 71.0%로 뒤를 이었다. 취업 준비 과정에서 느끼는 가장 큰 애로사항(복수응답)으로는 '직무 관련 업무 경험 및 경력개발 기회 부족' (69.0%)을 꼽은 응답자가 가장 많았다. 미취업 청년들이 생각하는 '괜찮은' 일 자리 판단기준(복수 응답)은 가장 많은 59.2%가 '워라밸 가능성'을 꼽았다. 이어 '직원 복리후생·복지제도가 잘 갖춰진 일자리' (54.2%), '공정한 보상이 이뤄지는 일자리' (50.1%) 등의 순이었다. /연합뉴스



광주상의·전북산음, 일경험사업 성과 공유회

결과 발표 평가 3개팀 시상

광주상공회의소가 전북산학융합원과 함께 지난 26일 군산 에이브호텔에서 '미래내일 일경험사업 프로젝트' 수행결과에 대한 성과공유회를 개최했다. (사진) '미래내일 일경험 사업의 프로젝트'는 기업에서 제안한 직무기반 프로젝트 수행을 위해 청년들이 팀을 구성하고 전문가의 코칭을 받아 성과를 내는 고용노동부 사업이다. 광주상의의 미래내일 일경험 호남권 지원센터로 선정돼 운영기관을 지원하고 있으며, 전북산학융합원은 전북지역 프로젝트 운영기관으로 참여해 기업과 청년을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전북산학융합원은 ㈜세아씨엔에스에서 제안한 '압전과 압력구조를 이용한 과속방지 자가전력 생산도로' 프로젝트를 포함해 ㈜서해테크, ㈜제다코리아, ㈜태진 군산공장 등 4개 중소기업을 통해 다

양한 프로젝트 일경험을 제공했다. 전북산학융합원이 올해 운영한 프로젝트에는 30개팀이 참여했는데, 사전과제 평가결과 상위 8개팀이 선발되었으며, 이날 성과공유회에서 프로젝트 결과물에 대해 발표했다. 대상에는 '신경계 물리치료를 위한 재활도구 제작' (발표자 양선경)이 최우수상에는 '휴대용 펌프형 소화기' (발표자 황모세), 우수상 '특장차용 자동제어장치에 적용 가능한 CAN 및 mqtt 무선 통신 프로토콜 어플리케이션 개발' (발표자 이상운) 등이 각각 선정되었다. 전북산학융합원 관계자는 "프로젝트형 일경험을 통해 참여기업에서는 청년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현장에 반영할 수 있고, 참여청년은 다양한 직무경험을 쌓고 역량을 강화할 수 있다"며 "진로 탐색과 직무 능력 향상을 희망하는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경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미래내일 일경험 사업이 확대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